

여성 한부모가족의 모-자녀관계*

Mother-Child Relationship in Female-headed Single Parent Families

호서대학교 인간개발학부 아동학전공

부교수 조성연**

Major in Child Studies, Hoseo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Cho, Song-ye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iculties, conflicts, and communications between female-headed single parents and their children, their child rearing methods and attitude, and the political suggestions for the welfare in those families. Th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7 women in Gyonggi-Do and Chungnam-Do on March 3-27, 2003. The interviewees were selected for the mothers whose children were enrolled either elementary schools or middle schools. The contents of interviews were recoded to be analyzed by qualitative metho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female-headed single parent families were in low economic status with unstable employment condition. Secondly, women in that families were confronted with psychological problems because of their multiple roles and low income. Third, although they had a controlled child rearing method, they used much reinforcement and praise. Thirdly, they were in need of the aids for the basic life such as housings and their children's private institute expenses. Finally, they required the repealing of an existing birthright system.

▲주요어(key words) : 여성 한부모가족(female-headed single parent family), 모-자녀관계(mother-child relationship)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배경

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사회의 산업화와 도시화의 결과로 가정에만 머물고 중속적이던 여성의 지위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상승하게 되고, 남성들도 가사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손쉽게 가정 밖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면서 가족 내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사회의 개방적인 가치관으로의 변화를 주도하게 되었다. 따라서 부부가 서로에게 의존해야만 했던 많은 문제들과 과거 인

내해야만 했던 성격차이나 배우자의 부정, 가정폭력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표출되면서 이로 인한 이혼이나 별거로 가족해체 현상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뿐만 아니라 2002년 현재 40대 남성의 사망률은 2.96으로 여성의 3배나 되며, 남성의 유배우자 사망률도 71.1%(통계청, 2003)로 나타나 사별에 의한 여성 한부모가족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해체현상으로 등장한 새로운 가족유형이 한부모가족이다. 한부모가족이란 “이혼, 별거, 사망, 유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양친 중의 한쪽과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따라서 자녀의 보호를 누가 맡느냐에 따라 모가 주 양육자이면 여성 한부모가족으로, 부가 주 양육자이면 남성 한부모가족으로 불리게 된다(장혜경·송다영·김영란·김정훈, 2001).

통계청(2003) 자료에 의하면 전체 가구 중 한부모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85 8.9%, '90 7.8%, '95 8.6%, 2000년 9.4%로 증가하였다. 이들 중 80%가 여성 한부모가족이며, 특히 30대와 40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 한부모가 된 원인은 이혼

* 본 연구는 한국가정관리학회의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며, 한국가정관리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주 저 자: 조성연 (E-mail : sycho@office.hoseo.ac.kr)

(43.7%), 배우자 사망(43.3%), 배우자 가출 및 유기(5.4%), 미혼모(4.7%), 기타(2.9%)의 순으로 나타나 이혼으로 인한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장혜경 외 3인, 2001). 이혼율은 남녀 모두 전체 연령층에서 상승하고 있으며, 이혼건수도 '90 45,700건, '95 68,300건, 2002년 145,300건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혼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남자 40~44세(14.6건), 여자 30~34세(15.0건)이며, 평균 이혼연령은 남자 40.6세, 여자 37.1세로 30, 40대의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비율이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혼한 부부의 평균 동거기간은 2002년 10.9년이 었다. 이혼당시 20세미만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는 69.7%나 되었으며, 이중 학령기 이전의 자녀를 두고 이혼하는 비율은 이혼 건수의 43.2%에 이르러 더 이상 어린 연령의 자녀가 이혼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이혼의 주된 사유는 성격차이(44.7%), 가족 간 불화(14.4%), 경제문제(13.6%) 등의 순이었다(통계청, 2003).

이와 같은 급변하는 사회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초혼·혈연·친족중심의 핵가족, 가부장적 가치관과 부계중심 가족관계로 양 부모를 전제한 공식적 가족제도, 이혼가정의 자녀들을 잠재적 문제아로 보는 암묵적 시선, 사회생활에 따라다니는 낙인 등으로 인한 여성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호주제 등의 제도적인 문제점, 성별역할분업의 존재 등은 여전히 여성 한부모가족이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을 어렵게 한다.

관련된 선행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다도 여성 한부모들은 경제적 빈곤 및 과중한 교육비 부담문제,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문제, 가족관계의 문제, 역할수행상의 혼란과 사회적 위축문제, 상실감이나 우울, 분노, 자존심의 저하 등으로 인한 정서적 문제, 재혼 문제, 호주제나 한부모가족 복지정책 등의 법적, 제도적 한계와 사회의 부정적 편견 등으로 한부모가족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이들의 자녀들도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감정처리나 생활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정서적 문제와 친구관계, 학교생활에의 적응 등 위기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다(권복순, 2000; 김경신, 2002; 김영희, 1996; 옥선화, 성미애, 허정원, 2001; 옥선화, 성미애, 이재림, 이경희, 2002; 장혜경 외 3인, 2001; 장혜경, 민가영, 2002; 차경옥, 2003; Amato, 1991; Kissman & Allen, 1993; Lino, 1994). 이런 요인들은 여성 한부모가족이 이혼이나 사별 후 적응해나가는 데 있어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모-자녀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면접을 통한 질적인 측면의 연구가 필요하다.

여성 한부모가족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결과들은 여전히 이 사회가 여성 한부모가족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한 번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유교적인 전통에 의한 우리의 사회적인 통념에 따른 결과일 수 있으며, 단순히 한부모가족을 역기능적인 가족유형으로 간주하여 생긴 결과일 수도 있다. 그로 인해 사별이나 이혼이 좌절이나 실패 등의 부정적 측면보다는 성공이나 성취 혹은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의 기회를 제공해줄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들이 간과되어왔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사별이나 이혼으로 인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여성 한부모가족에서의 부모 자신의 개인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그들 자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특히 여성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안정된 직업을 갖는 것이 어려워 사회 최하위계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일반가족에 비해 심리적인 복지수준도 비교적 낮게 인식되고 있다(최혜경, 1997; Marks, 1995). 그러므로 이것이 그대로 자녀에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여성 한부모가족의 모-자녀관계에 대해 이들이 생각하고 당면하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여성 한부모가족 내에서의 모-자녀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전반적인 어려움이나 문제점, 자녀양육 상의 어려움, 이들 간의 갈등이나 해결방안, 자녀와의 대화 시간 및 대화 양과 장애요인, 자녀양육방법 및 태도를 살펴보고, 여성 한부모가족이 바라는 복지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문제들과 여성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적 차원의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 한부모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자료수집을 통해 이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측면의 모-자녀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기존의 선행연구들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화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주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나 본 연구는 가족주의적인 경향이나 유교적인 생각이 비교적 강한 지방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여성 한부모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이 모-자녀 관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문제점뿐만 아니라 이들이 나타내는 자녀양육방법 및 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둘째, 기존의 연구들이 양적인 측면에서의 여성 한부모에 대한 자녀양육방법이나 태도에 대해 살펴본 것에 비해 본 연구는 심층면접을 통해 이런 점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셋째, 많은 사례를 표집한 것은 아니지만 이혼과 사별로 인한 여성 한부모들을 비교함으로써 이들이 처한 개별 상황에서 경험하는 모-자녀관계를 심도 있게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넷째, 단순한 모-자녀관계에서의 자녀양육방법이나 태도를 넘어 이들이 자녀들과 나누는 대화의 시간이나 양 및 대화 시 장애요인, 자녀와의 갈등해결 방법 및 자신이 힘들 때 술과 담배 등의 사용, 아버지와의 만남, 재혼에 대한 생각 등 여성 한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혹은 본인이 여성 한부모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측면의 어려운 점들을 질문함으로써 모-자녀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지방 중소도시의 여성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인 시각을 전환하고,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이 가족의 제반 문제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2) 연구배경

(1) 여성 한부모가족의 일반적 특성

여성 한부모가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8.8%로 대부분 저임금의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어서(김미숙·박민경·이상현·홍석표·조병은·원영희, 2000) 경제적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의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옥선화(2003), 장혜경 외 3인(2001)의 조사결과에서 여성 한부모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 문제이며, 특히 교육비 부족과 학습지도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가계 주부양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가지고 있었다. 변화순·송다영·김영란(2000)도 여성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에 대한 조사결과, 이들의 월평균소득은 일반가구의 49.1%에 불과하며, 이중 생계비 지출은 18.0%이나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출은 5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희(1996)의 조사에서도 여성 한부모가 느끼는 스트레스 중 가장 심각한 것은 경제적인 것이며, 다음이 건강, 자녀관련, 주위환경, 대인관계 순이었다. 또한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하여 여성 한부모들은 친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지역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2) 여성 한부모가족의 모-자녀관계

사별과 이혼으로 인한 여성 한부모가족은 가족구성원들에게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과도한 역할긴장이나 과부담을 느끼게 하여 부정적인 정서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지각하고 받아들이는데 있어 여성 한부모가족의 인지적, 정서적 특성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지망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 한부모가족의 바람직한 가족관계형성을 위해 다양한 양육기술과 자녀와의 개방적인 대화 등은 안정된 가족형성을 위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을 전혀 몰라(장혜경·민가영, 2002) 이런 중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그 상처와 충격에 의한 피해는 어느 누구보다도 클 수 있지만 이와 관련된 심도 있는 연구는 많지 않다.

일반적으로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은 신체적·정서적 만족과 지원, 보호와 안전을 위해 의존하고 있는 가족체계가 위협받는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Smilansky, 2002: 11), 이러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즉 여성 한부모가족은 이혼 전보다 모-자녀관계가 더 긍정적이고 가까워져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와의 대화단절이나 자녀의 반항 등에 의한 문제는 거의 없고 비교적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여성의 사회, 경제적 자원은 비교적 제한되어 있지만 경제적인 자립을 하고 있고, 가족구성원들이 스트레스 상황에 잘 적응하고 있어 가족분위기도 화목하여 현재의 가족생활에 만족한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김오남, 1999; 이소영, 옥선화, 2002; 장혜경 외 3인, 2001; 장혜경·민가영, 2002). 반면 이혼 후 모자관계가

평등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로 발전되면서 갈등이 표면화되기 쉬워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경향이 많다. 또한 가족체계가 붕괴됨으로써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노출되면서 자녀들이 두려움과 공격성을 나타내고, 학교생활에도 잘 적응하지 못하여 아동의 성장에 큰 위기를 겪는다는 연구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김보경, 2001; 조병은, 1998; 지은선, 2002; Smilansky, 2002; Wallerstein, 1986).

(3) 여성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

여성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대책으로는 주택의 우선지원,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자녀학비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생업자금 융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등 서비스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서비스는 주로 절대 빈곤층인 요보호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 또한 여성 한부모가족을 위한 심리, 상담서비스도 몇몇 기관들에서만 제공되고 있을 뿐이어서 다양한 지역의 여성 한부모들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때에 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들을 총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이나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하나 아직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나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를 위해 양혜경(2000)은 한부모가족의 심리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위해, 기타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 전체를 지원하는 센터의 설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강기정·이무영·김영희, 2002, 개인용). 김순옥(1993)은 이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내용으로 이혼 부부들을 위한 부부관계 교육, 이혼예방과 결과에 대한 교육, 이혼에 대한 조정 및 법률상담, 직업훈련 및 취업정보, 부모역할 및 자녀교육, 재혼에 대한 정보와 기회 마련에 대한 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장혜경·민가영(2002)도 이혼으로 인한 여성 한부모가족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즉 단기적으로는 양육비 관련 법조항을 마련하고, 구직활동이나 자녀학비 지원 및 임대주택 보급, 상담과 부모교육, 양부모 중심의 학교활동 개선 등을 지적하였다. 장기적으로는 법을 정비하고, 사회적 인식의 개선 및 자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사교육프로그램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2. 연구문제

첫째, 여성 한부모가족의 일반적 특성과 문제는 무엇인가?

둘째, 여성 한부모가족의 모-자녀관계는 어떠한가?

1. 여성 한부모가족의 모-자녀관계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2. 여성 한부모가족의 모-자녀관계에서의 갈등과 그 해결방법은 무엇인가?

3. 여성 한부모가족의 모-자녀 간의 대화양의 정도와 대화시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여성 한부모의 자녀양육방법과 태도는 어떠한가?

넷째, 여성 한부모가족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나 정책 제안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와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첫 자녀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여성 한부모 중 7명을 임의표집하였다. 이들의 연령범위는 34세~39세이며, 평균연령은 36.0세였고, 한부모가족이 된 이유는 사별이 2명, 이혼이 5명이었다.

2. 연구방법, 연구절차와 자료 분석방법

선정된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내용을 살펴보기 위하여 모-자녀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자가 선택한 면접문항을 가지고 개인당 약 2시간여 동안씩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은 연구대상의 거주지역에서 2003년 3월 3일부터 2003년 3월 27일까지 본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면접내용은 전부 녹음되었으며, 녹음된 자료는 전량 전사한 후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3. 면접 내용

첫째,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이들의 현재 나이와 여성 한부모가 되었을 때의 연령 및 자녀의 당시와 현재 연령, 여성 한부모가 된 이유, 교육수준 및 현재 직업유형, 월평균 소득 및 친지나 국가의 재정 지원여부, 주택소유현황, 동거가족 유무 및 가족관계 등을 질문하였다

둘째, 여성 한부모의 가족생활문제는 여성 한부모로 생활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운 점과 술이나 담배 사용 여부, 재혼 고려 여부 등을 질문하였다.

셋째, 모-자녀 관계에서는 이의 어려운 점과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 자녀양육시의 스트레스와 죄책감, 자녀에게 기대하는 점, 자녀와의 갈등해결방법, 자녀와의 대화시간대와 대화 양 및 대화 시 장애요인에 대해 질문하였다.

넷째, 여성 한부모의 자녀양육방법에서는 이들이 사용하는 칭찬과 벌, 자녀의 행동격려 시 사용하는 방법, 자녀양육태도 등을 질문하였다.

다섯째, 정책 제안에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 사회적 지원서비스에 대한 요구 등의 전반적인 복지에 대한 요구를 질문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여성 한부모가족의 일반적인 특성 및 문제점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 표 1 >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사례	1	2	3	4	5	6	7
연령	34	35	39	38	38	34	34
학력	고졸	고졸	대학원졸	고졸	고졸	고졸	고졸
직업	서비스업	없음	대학강사	생산직	서비스업	서비스업	사무직
소득(만원)	70	115	300	70	100	250	200
자녀	2	2	2	1	2	2	2
자녀연령	초3(♂) 6세(♀)	초4(♀) 초1(♂)	초5, 4 (♂)	중1 (♂)	중1(♀) 초2(♂)	중1, 초4(♀)	초3(♀) 6세(♂)
기간	5	6	2	3	3	7	2
이유	사별	사별	이혼	이혼	이혼	이혼	이혼
동거가족	친정모/ 조카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남동생	남동생
주택소유	전세	임대	자가	전세	전세	전세	동생집 거주
기타	임대 아파트 소유	오빠월 백만원, 정부 월15 만원/ 아파트 소유	전남편 월 60 만원/ 개별 수입 월200만 원	전남편 의 부정기 적인 보조	아들 부친 양육	호프집 고용 사장	전남편 월120만 원/ 아파트 소유

1) 연령

연구대상의 연령은 모두 30대이며, 평균연령은 36.0세이고, 27세~35세 사이에 한부모가족이 되었으며, 처음 한부모가족이 되었을 때의 평균연령은 사별 29.0세, 이혼 33.2세로 전체 평균연령은 32.0세이다. 여성 한부모가족이 된 기간은 2~7년으로 평균 4년이다.

2) 교육수준 및 직업

연구대상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6명, 대학원졸이 1명으로 비교적 낮다. 직업은 대학원 졸업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생산직과 서비스직이며, 모든 면접자들의 직업지위는 계약직으로써 불안정한

상태였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70만원~300만원 수준이며, 호프집 고용사장과 전 남편의 양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월평균 소득은 높은 편이 아니었다. 대학시간강사인 경우에는 별도의 개인적인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높았다.

3) 자녀 관련사항

자녀수는 대부분 2명이었으며, 여성 한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의 연령은 1세~11세까지로 미취학 연령의 자녀가 7명, 초등학교 시기의 자녀가 5명이었다(자녀수로 인하여 복수응답임). 이는 자녀의 연령에 관계없이 부부들이 이혼을 함으로써 이혼연령이 하향화되는 최근의 경향을 잘 나타내준다. 자녀들의 양

육권은 모두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으나, 사례6만 아버지에게 있었다. 또한 사례5는 자녀가 2명이지만 부모가 각각 1명씩 나눠 양육하고 있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자녀양육권은 경제적인 능력에 관계없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게 더 많이 주어짐을 알 수 있다.

4) 동거가족과 주택소유상황

한부모가족은 주로 친정어머니나 남동생, 조카 등 친정가족과 동거하는 경우가 많았고, 시댁과의 관계는 이혼인 경우 이혼과 동시에 완전히 단절되었다.

5) 여성 한부모가족이 된 사유

면접대상이 여성 한부모가족이 된 이유는 사별이 2사례, 이혼이 5사례였다.

(1) 사별(2사례)

사별인 경우는 2사례 모두 남편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하여 전혀 예기치 못한 배우자의 죽음에 대해 준비 없이 여성 한부모가족이 됨으로써 그로 인한 심리적인 충격이 컸고 이를 극복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 남편이 갑자기 그러니까 같이 자다가... 좀 많이 놀랐어요 지금도 가끔 병원에 다니고 그러는데 너무 놀래서, 놀래서 그랬는지 병원에 자주 가는 편이에요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물을 마신다든지, 숨이 멈출 것 같은... 좀 불안하고 그런 것 때문에. 아빠가 갑자기 그러니까 같이 자다가... 분명히 숨을 이렇게 애들이 막 토하고 쉬는데 안 쉬잖아요? 그러면 귀를 대본 적도 많이 있죠 가서 만져보기도 하고, 분명히 소리가 나야되는데 숨소리가 안 들리고 그럴 때는 좀 그런... 그래서 병원에도 다녔어요. (중략) 나는 굉장히 아프지만 그런데 검사를 해보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신경성이라고 말하더라고요(사례1)

- 남편이 갑자기 죽어서 그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정신과에도 갔었어요 자주 쓰러져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갔는데 혈압이 180에 220인가? 처음에는 청각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사례2)

(2) 이혼(5사례)

이혼으로 인한 여성 한부모가족은 사례5를 제외하고 모두 합친 이혼하였으며, 그 이유는 성격차이, 남편의 외도, 남편의 경제적인 무능력과 폭력 등이었다. 이 중 사례4는 이혼 충격으로 말을 더듬는 경향이 있어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클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사례7은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2년 동안을 버티다 남편의 강한 요구로 이혼하게 되었으며 자신은 최근까지도 이혼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고 아이들을 위해 합칠 마음도 가지고 있었다. 반대로 사례3은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력 등을 이유로 오랜 시간 여자 쪽에서 강력하게 요구하여 이혼하였다. 사례6은 너무 일찍 결혼(20세)함으로써 전남편과의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여 이혼하였다.

-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파생되었는데 성격, 외도, 폭력, 경제적인 문제 등...그러나 무엇보다도 회복이 불가능했던 것은 믿음이 깨지면서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점이지요 결국 재가 많이 위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사례3)

- 성격차이죠, 뭐(사례6)

- 한 3개월 정도 나가서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내(社內)에 있는 여자였어요 (중략) 내가 몰랐으면 오히려 모른 척 하고 왔을 건데 그게 알았던 게 더 화근이었던 거 같아요 (중략) 이혼 안해주면 사람을 죽일 것 같은 그 눈빛 있잖아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여자한테 눈이 뒤집혔다는 생각을 하니깐 이럴 수 있나 싶은 그 마음이 너무 컸어요(사례7)

6) 여성 한부모가족이 된 기간

여성 한부모가족이 된 기간은 2년~7년이었으며, 평균 4년이었고, 당시 자녀의 연령대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 표 2 > 한부모가족이 되었을 때 자녀의 연령대 빈도 (복수응답)

자녀 연령	빈도수
1세 미만	1
1~3세 미만	1
3~6세 미만	4
초등학교 저학년	4
초등학교 고학년	2

여성 한부모가족이 되었을 때 자녀의 연령은 학령전 시기와 초등학교 시기가 각 6명으로써 자녀가 어린 상태에서 한부모가족이 되었다. 사별인 경우는 4자녀 모두 학령전 시기에 한부모가족이 되었으나, 이혼은 사별보다 자녀의 연령이 조금 더 많을 때 이루어졌다.

7) 경제적인 문제와 재혼 문제

(1) 사별

면접대상들 모두 남편의 사망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지났고, 심리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주변의 많은 도움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넘겨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사례1은 직업을 가졌던 적(미용실)도 있었으나 여성 한부모가족이 된 후 새롭게 직장을 구하여 생활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의 근무조건이 열악하고(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 월평균 소득도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자녀양육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친정어머니가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지만 주변의 도움이 거의 없어 주변에서 재혼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례2는 친정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어려움은 적어 자녀 문제로 인한 재혼을 고려하지 않았고, 주변에서도 권유하지 않았다.

- 시간이 별로 없어요 밤에 오면 자니까. 내가 3시까지... 개네 들 올 때쯤에 가니까. (중략) 한달에 70만원 가지고 생활하니까 한참 모자르죠(중략) 그런 생각(재혼)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주위에서 좀 많이... 특히 부모님들이나 형제들이 많이 권유하죠 아직 나이도 젊고 또 애들도 아빠가 꼭 필요하니까... 없는 것 보다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는 편이죠(사례1)

- 어머니(친정)이 돈을 많이 대주세요. 반찬하고 기본적인 양념, 마늘, 고기까지. 오빠가 달걀이 백만 원씩 대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나라에서 3개월에 45만원 정도 나오는 게 있구요. 제가 피아노를 배운 게 있어가지고 집에서 아이들 과외를 하기도 하고, 시간제로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중략) 그 생각(재혼)은 전혀 안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권하지 않고 형제들도, 오빠가 생활비를 대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잘 키우라는 그 말이거든요(사례2)

(2) 이혼

이혼에 의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있는 경우가 2사례(각각 60만원과 120만원)였고, 1사례는 부정기적으로 약간 받고, 2사례는 전혀 받지 않았다. 대부분의 여성 한부모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생활비를 조달하였으나 생산직과 계약직 등 불안정한 지위에 있었고, 호프집 고용사장파와 대학시간강사인 경우를 제외하면 월급이 100만원 이하의 수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컸다. 이는 여성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무엇보다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예측하게 해준다. 그러나 주택문제에 있어서는 임대아파트라 할지라도 7사례 중 4사례가 자기 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중 몇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심리적인 외로움, 한 번 결혼의 실패로 인한 새로운 결혼생활에의 동경 등 자녀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재혼을 생각하기도 하였다.

- 재혼에 관해서는 오히려 친정어머니나 친구들은 “너 또 하고 싶냐?”라고 얘기들하고, 아이들 생각하면 재혼이 아이들에게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나 내가 사랑하고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서로 의지하고 아껴주며 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사례3)

- 헤어진 후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어려워요. 자녀도 키워주고 돈만 준다면 뭐 재혼하는 거지(사례4)

- 경제적인 문제가 힘들죠. 힘든데 현실에 맞춰서 써야 하는 부분이 때문에 그냥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중략) (재혼한다면) 혼자 살기가 너무 외로우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게 이유겠죠(사례5)

- 아빠가 필요해서 재혼을 생각하지는 않는데 내 인생을 위해서는 해야겠죠(사례6)

- 재혼을 한다면 아직은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진짜로 재혼하고 싶으면 애들 클 때까지는 키워주고 애들 큰 다음에 들어 인제 친구같이 만나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로 애들 때문에 재혼한다면 ‘애 아빠랑 다시 합쳐야 되겠다.’ 이런 맘은 있어요(사례7)

8) 심리적인 문제와 술, 담배 사용

여성 한부모가족이 된 후 많은 여성들이 심리적인 공허함과 남편의 부재로 인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책임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술과 담배를 가까이 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다. 술의 경우에는 과거 남편과 조금씩 먹었던 경험이 있었지만 담배인 경우에는 이혼이나 사별 후 심리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배운 경우가 많았다.

(1) 사별

사별한 경우에는 친지들이 심리적이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기에 술이나 담배를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적었다.

- 술은 전에 애 아빠하고 같이 마시고, 담배는 아빠가 돌아가신 다음에 배우게 됐죠(사례1)

- 어머니가 많이 결정을 해주셨어요. 옆에서 친정어머니가 현실적으로 이제 내가 혼자라는 것을 인식시켜주셨고, 형제들이... 갑자기 충격받고 하니까 정상적이 안되더라고요, 몸상태가. (중략) 큰애를 보기가 싫었어요. 죄책감 때문에. 그리고 남편이 ‘왜 이렇게 갑자기 내 곁을 떠났을까?’ 그런 것파 아이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아빠도 없는데 아이들이 이제 아빠 없이 나가고 그런 생각을 한거죠. ‘아빠가 없으면 아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밖에)나가질 않았죠. 처음에는 바깥출입을 안하구요, 병원 갈 때만 데려갔다 데려오고 그랬어요. 아이들이 아플 때만. 한 7개월 정도요. 거의 안나갔어요(사례2)

(2) 이혼

이혼한 경우에는 형제와 친지들의 냉대와 배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정을 받기도 하였다. 이혼으로 인해 혼자인 것과 경제생활에 대한 두려움, 부모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술과 담배의 사용이 많이 늘었고, 심리적인 방황도 겪었다.

- 아주 힘들 때 혼자 또는 친구들과 술을 마셨는데 술은 먹을수록 양이 늘었어요. (중략) 친정에 가도 내가 장녀라서 항상 마음이 무겁고 편하지 않아요(사례3)

- 이혼녀가 된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힘들었고 그동안 노력했던 것에 대한 결과가 이것밖에 안되나 하는 허탈감,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내가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 그리고 어렸거나 그동안 이루어왔던 부분을 다 잃어야 되는 부분을 받아들이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사례5)

- 식구들한테 많이 내뺐었어요. 집 신고 들어가다가도 많이 빠꾸 맞았죠. 쫓겨나고, 오빠하고 먹살잡고 싸우기도 하고 ‘왜 이혼했으면 딱 데가 살지, 부모님 근처에서 동네 창피하게 있냐.’고 싸우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형제들하고는 오빠 같은 경우는 아예 의절하고 안 만나요. (중략) 나와 보니까 사람들이 다 무섭고, 자기만 생각하고 막 그런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힘들니까

한참동안은 살기 싫었어요 그리고 애들도 사실 내팽개치다 시피 하고 많이 방황하고 돌아다녔던 거 같아요(사례6)

- 답배는 퍼봤어요 지금 안하고 그때 (남편이) 안 들어올 때 (중략) 헤어져가지고 갈 때 없어서 오라고 하니까, 창피해서 내가 동생한테 말 못했는데 오라고 하니까 고맙더라고요(사례7)

9) 자녀와 아버지와의 만남

이혼한 후, 여성 한부모들은 남편과 특별한 용무가 없는 한 거의 만나지 않았고 만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겼으나 자녀들과는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주말에 직접 만나거나, 간혹 집으로 찾아오기도 하였으며, 전혀 만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집에 오는 경우에는 자녀의 연령이 어려 자녀들에게 이혼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 이혼한 후 2-3번을 제외하고는 매주 주말에 아빠와 아이들이 만나고 있어요(사례3)

- 아뇨, 안 만나죠(사례4)

- 자녀하고는 자주 이메일 주고받고 있구요 (중략) 처음에는 만난다는 거 자체도 많이 힘들었는데 만나고 나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그래도 건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일상생활에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사례5)

- 이혼하고 그 해하고, 그 다음 해하고 1년에 두 번 정도씩 와서 보고 만나다 하면은 애들을 만나게끔 해주긴 하는데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거의 연락을 끊고 사니까. 시간나면 1년에 한번 정도는 온다고 했는데 제가 필요 없다고 하는 편이에요(사례6)

- 평균 1년에 한 다섯 번, 아빠가 오죠(사례7)

2. 여성 한부모가족의 모-자녀관계

1) 모-자녀관계에서의 어려운 점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자녀의 연령이 어린 경우에는 자녀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모-자녀 관계에서 그리 큰 어려움을 느끼거나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모-자녀 간에 어려움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자녀에 대해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각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충분한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은 가능한 한 자녀들에게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

① 사별

사별의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여성 한부모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기 보다는 부친부제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과 주변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어 그로 인해 자녀들이 심리적 충격을 받을까봐 걱정하였다.

- 아직 애들이 어리니까 그런 걸 모르겠어요 (중략) 애들 교육 문제죠 아무래도 그게 나한테는 애들이 큰 재산인데... 남들처럼 학원도 좀 많이 보내주고 싶고 그런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좀 그렇죠(사례1)

- 아빠 없는 거. (중략) 애가 학교를 1, 2, 3년 다니다 보니까 엄마들이 알잖아요 다른 엄마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야단칠 때 "너는 참 왜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그러니? '누구누구를 봐라' 개는 아빠가 없어도 애도 밝고 너무 잘한다." 그 말을 했는데 개는 그 순간에 '아, 재는 아빠가 없는 애다.' 그걸 알아듣고서 그때 나름대로 생각을 했다가 자기가 불리할 때, 만 애들 있을 때 몰아부친거야. "너는 아빠 없는 불쌍한 애야." 그 얘길 했는데 애는 처음에 표현을 안 하니까, 나중에 얘길 해보니까 울었대요 엄마는 자기 맘을 모른대요(사례2)

② 이혼

이혼의 경우에는 주변의 부정적인 시각과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들에게 건강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다. 또한 여성 한부모 가장으로써 이혼에 적응해야 하는 문제와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 때문에 겪어야 하는 심리적 문제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다. 이런 점들로 자녀가 활발하지 못한 성격이나 이상 성격을 형성하게 될까봐, 혹은 불량한 행동을 나타내게 될까봐 걱정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 죄의식을 느끼기도 하였다.

- 아이들이 거짓말, 돈 훔치기 같은 이상행동을 했을 때 너무 화가 났지만, 겁도 나고 나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파생된 것 같아 죄의식을 느끼기도 했어요(사례3)

- 경제적인 거. 아닌 거는 아직은 어리니까, 엄마가 다 맞춰주니까(사례4)

- 제가 이혼소송을 9개월 걸리는 동안에 어떻게 좀 쉽터에서 떨어져 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 아이가 학교 학생들하고 담배를 잠깐 피 가지고 굉장히 좀 놀렸고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아이는 호기심도 버리고 환경에 적응을 하는 것 같아서 지금 감사하고 있지요 큰아이(딸)가 그랬어요(사례5)

- 최선의 선택으로 결정된 부분이 아이한테는 적용하기가 어렵고 또 한쪽 부모 없다는 거에 아이가 위축되고 기가 죽을까봐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들었고 그리고 자녀한테 어렸든 건강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게 가장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사례5)

- 작은 애는 별로 문제는 없는데 큰 애 같은 경우가 7살 때 (이혼했으니까 어느 정도 그 생각을 다 하고 알 때니까. 애가 말

이 많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안해요. 말이 많고 그랬다가보다는 그냥 평범한 아이였는데 말이 많이 없어요 (중략) 기를 좀 못 똥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중략) 돈벌고, 애들 키우려니까 '너무나 어려운 명칭한 짓을 했구나. 돈이라도 들고 나올걸' (중략) 자리 잡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애들이 많이 고생했지, 정말(사례6)

- '아빠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놀러 갈 때도 그렇고, 뭐 배워줄 때 작은 애가 남잔데 할아버지가 배워주고, 노는 거가 쥔 그랬어요. 둘이 놀았는데 나 혼자 인제 못 충족시켜주니까 아직은 노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아빠가 필요하다고 느끼죠. 멀리 가는 것도 그렇고 셋이라서 그게 좀 창피했어요. 솔직히 나 혼자라서(사례7)

(1) 자녀 양육시의 스트레스와 죄책감

여성 한부모들은 주변사람들로부터 아버지가 없음으로 인해 버릇 없는 자식이라거나 본보기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아이들 행동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다. 이들은 명절이나 나들이 갈 때 남편 없이 행동해야 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꼈다. 또한 학교에 내는 서류 등에 가족사항을 적을 때 여전히 남편의 성씨를 기입해야 하는 점, 여성 한부모라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을 때, 자녀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남편에게 부탁하여 챙겨야 하는 점 등이 스트레스 요인이 되었다.

- 그거, 명절 때요. 그것도 진짜 힘들어요. 처음에는 제가 명절 때 과자를 많이 사다놓고 한 2, 3일 집에서 못나가게 했어요. 그게 1년에 추석도, 구정도 그렇고 지금도 싫어요. 끔찍할 정도로 저는 싫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다 거기는 부부들이 가족을 데리고 가는데 저만 저기(혼자)잖아요. 그래서 그게 싫더라고요, 상당히. '왜 명절인데 아빠 없이 그렇게 혼자 다닐까?' 그게 남들이 보는 시각이 있을 거 같아서 그게 싫었던 거예요. 명절 때 되면 아빠가 아이들 안고 가는 게, 그런 게 보면 싫더라고요. 아빠가 없고 해서 아무래도 가족이 놀러 갈 수 있는 그 공간에 없다는 것도 싫은 거고 (중략) 아빠가 없어서 같은 행동을 해도 '아빠 없으니까', 옛날 말로 '버릇이 없고 저럴까?' 그런 거. 그런 소릴 듣진 않을까, 엄마 힘이 부족하다는 거.(사례2)

- 사실 학교환경조사서에는 이혼했다고 밝히지 않아 새 학년이 되어 우리 가족 소개할 때 아이들 스스로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또 아이들과 여행을 자주 가는데 이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아이들과 저만 가니까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쳐다보는 것 같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게 싫었어요(사례3)

- 말 안 들을 때. 그럴 때 머 컴퓨터 같은 거 많이 할 때. 그럴 때는 좀 반쪽이 있기를 바라죠. 왜냐면 엄마는 야단만 치니까 끝인데, 아빠 같은 사람이 있다면 좀 야단치면 무서워하니까. (부모의) 직업을 써오라고 할 때, 우리 같은 때는 아빠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니까 그쪽까지 다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가족사항 그거 적을 때(사례4)

- 아빠가 없기 때문에 애가 기가 죽을까봐 스트레스가 되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저도 살아가면서 힘들기 때문

에 오히려 나의 힘든 점이 아이한테 전달이 될까봐 그 부분이 힘들고, 그리고 생활이 짜증나서 자녀한테 대하는 태도보다는 마음이 더 안쓰럽죠. 더 어려우니까 더 잘해주고 싶은 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사례5)

- 진짜 스트레스 받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양육권이 아빠한테 있다보니까 학교에서 무슨 뭐 그 서류 같은 거 필요할 때요. 그런 부분이 아직 너무 힘든 거 같애. 짜증이 많이 나오 (중략) 새 학기가 시작되면 가정 조사하라고 집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밑에다 써요. 애들 혼자 키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달라 쓰거든. 근데 그러면서도 뭐 어디 박서, 몇 대니, 뭐 이런 거 써오라 하잖아요. 그럴 때 너무 짜증나요. 이런 제도가 너무 짜증나요 (중략) 큰 꼬마가 수학여행을 일본으로 갔어요. 근데 아주 거기서 너무 분개를 해가지고 내가 혈압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여권을 만드는데 서류가 다 아빠 거가 필요한 거예요. 서류가 뭐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내걸 다 떼어다 댔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아빠 거를 떼어오라는 거야(사례6)

- 친구들 놀러 오는데 "아빠가 없다."고 그러고, "어디 있냐?" 그러는데 그냥 "현대백화점에 있다."고 그랬다고. 백화점 건물이 거든 방송국 있는 데가. 그랬더니 현대백화점은 애들이 또 다 알고 있는지 "서울하고 울산만 있다."고 그랬대요. 친안에 없는데 "너네 아빠, 같이 안 살지 않냐?"고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는 '왕따되기 싫다.'고 '아빠가 회사 끊고 오라.'고 그랬더라고요. 자기 왕따되면 어떡하냐고. 난 오히려 못해주고 오히려 거짓말만 시켜요. 아빠 있다, 출장 갔다고 그러던가, 인제 주말에 오신다고 그러고 그 대신 집에 데리고 오지 말라고, 창피하다고, 이제 좀 어지르니까(사례7)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자녀에게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미안해하였다. 그러다 보니 수입에 비해 자녀들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다.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가족여행이 많아지는 추세인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 특히 애들이 뭐 학원 몇 군데 이렇게 가고 그럴 때. 아직은 애가 좀 그런데 가고 싶은 거 같아요 (중략) "왜 혼자 놀고 있어?" 그러면 "친구들이 없잖아요, 학원 가 가지구요." "그러면 집에서 숙제하고 있다가 애들 오면 놀면 되잖아." "학원 갔다 올 시간에 그거 끝나고 또 태권도 학원 가구요, 태권도 끝나고 또 무슨 학원 가구요." 그럴 때 개네들 하고 같이 보내줘서 같이 공부도 하고, 노는 시간에 개네들 하고 같이 놀았으면... 그런 생활할 때가 가장 미안하죠(사례1)

- 애들이 방학 끝나고 나면 가족끼리 어디를 갔다 왔다, 엄마, 아빠랑. 특히 할머니네, 친할머니네 갔다 왔다. 그런 얘기할 때 죄책감이 들죠(사례2)

- 못 해 줄 때. 혼자 키울 때. 누구네 집에 갔는데 거기는 아빠가 있을 때, 잘해주면 애들이 보구선 뭐라고 생각할까? 괜히 가

정에 한쪽이 없을 때는 부담이 없는데, (아빠가) 있을 때는 피하죠. 아이를 안 데리고 가려고 노력하죠.(사례4)

- 죄책감 보다는 그냥 좀 미안한 그런 마음이고 그리고 어쨌든 엄마, 아빠 함께 사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지, 죄책감이라고까지 전 생각을 안했거든요.(사례5)

- 미안하죠 애들한테 항상 미안해요 뭐 침에 애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는 전혀 무슨 생활 능력이 안됐으니까. 그때 지금도 마음에 걸리는 게 나와서 두 달 정도를 남의 집에 있었어요 이렇게 왜 들어가서 입주해가지고 맡겨놓는 집 있잖아요 그걸 두 달 정도 했었어요 그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아무리 하루에 죽 한 끼 끓여 먹어도 데리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지들 만큼은 편하게 따듯하게 있으라고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나도 돈 번다고 돌아다니고 있었고 두 달 있었는데 미안해, 참. 그게 깨들 생각엔 '엄마가 우리를 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을 거 같아서 애들이 밤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미안해요(사례6)

- 짧죠 그냥 순간순간 그런 게 있어요 늦게 들어올 때,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괜히... 내가 훌쩍 털고 막 다 잊어버리고 해야 되는데, 자꾸 막 생각나고 어떨 때는 잘했다고 생각되고, 어떨 때는 뭐 내가 좀 잠을 잘, 봐줄걸, 내가 내 욕심만 차렸나 싶기도 하고(사례7)

(2)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

여성 한부모는 주변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하여 한부모가족이 된 후 자녀들과 함께 아버지 없이 외출하거나 여행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하였다. 자녀들의 입장에서 더 이상 아버지와 한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할 때, 학교에서 가족이야기를 할 때, 자신들로 인해 부모가 이혼을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염려할 때 심리적인 갈등을 겪는 것으로 여성 한부모들은 인식하였다.

- 아빠랑 할 수 있는 거, 아빠 직업 써 내는 거, 학교에서 그 거 나오면 애가 기죽을 거고, 수업시간에 학원 같은데서 '아빠하고 엄마한테 편지 쓰세요' '부모님한테 편지쓰세요' 할 때 이제 우린 엄마밖에 없는데...(사례2)

- 아이들의 생각에 이제 우리는 가족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됴으로써 이에 대해 불평을 했던 적이 있어요(사례3)

- 자녀들은 이혼을 하게 된 게 본인들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큰아이는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중략) 아무래도 아빠가 없다는 부분이 아이가 겪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대인관계에서도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네요(사례5)

- 무슨 행사 때 있잖아요 아빠가 안 오니까 그전부터 오라고 메일은 보내거든요, 말도 안 되지만 오지도 못하지만 오라 해놓고 와서 아빠들이 밀어주고, 같이 또 뛰는 거 있고, 업고 뛰는 거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걸 보면 되게 부러워하고, 엄마 나와서 뛰라

고 그러더라고요 (중략) 아빠랑 놀던 거를 그대로 흉내 내려고 하고 그런 거 보여요 또 자기 아빠 없어도 지들끼리 또 아빠랑 놀던 거를 흉내 내더라고요 (중략)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중략) 아빠는 왜 엄마 놔두고 다른 여자 좋아하냐고(사례7)

(3) 자녀에게 기대하는 점

여성 한부모 가장은 사별이나 이혼에 관계없이 자녀들이 아빠가 없음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자녀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빠들어진 성격을 갖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건강하고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 등 기본적인 것을 기대하였다. 사별과 이혼의 차이점은 사별은 아버지가 없는 것으로 인해, 이혼은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한 점을 많이 고려하였다.

- 사춘기 때나 이럴 때 아빠가 없는 것에 대해서 좀 빠들어서 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엄마 혼자서 키워도 '참 버릇 없인 안 키워왔다.' 이렇게 남한테 들을 수 있을 정도로만 그렇게 커줬으면 좋겠어요(사례1)

- 큰 기대는 없구요. 그냥 정상적 평범한 인간이 되어서 자기가 사회에 나가서 직업이나 뭘 가져도 거기에 잘 적응을 하고 직장에 그냥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그런 가정을 갖기를 바라는 거. 아이가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사례2)

- 혼한 가정의 아이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남으로부터 나쁜 선입견이나 편견에 의해 피해 받지 않고, 건강하고 밝은 건전한 사람으로 잘 성장해주길 바랄 뿐이에요(사례3)

- 바르게 살아주는 건데, 바르게 사는 거죠 빠들어질까 봐. 엄마 혼자 키운다는 것 때문에 그런 욕먹을까봐, 누가 없어서 무슨 자식 그런 거 많이 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사례4)

- 그냥 공부 못해도 좋은데 밝았으면 좋겠어요(사례6)

- 엄마가 사랑하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어요(사례7)

2) 여성 한부모가족이 된 후 자녀와의 갈등 해결방법

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자녀와의 사이에 별다른 갈등이 없으나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이 되어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대화시간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내적인 갈등이 존재하였다.

(1) 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

자녀의 연령이 어린 경우에는 아직 갈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하고 그다지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갈등이 생긴 경우에는 스킨십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 아직은 갈등이 뭔지 잘 모르죠 어리니까. 너무 어려서 그냥 엄마 말이라면 듣고, 엄마가 이거 하라하면 하고, 지가 좋아서 물어봐서 이거 한다고 그러면, 허락하면 하고(사례1)

- 아이를 잘 만난 거 같아요, 제가 갈등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말을 안 들으면 소리도 지르구요 애를 키우다 보면 그러겠죠? 그리고 나서 안아요 가슴으로 안고 가만히 있어요 "나, 너 사랑해." 저는 그 방법 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사랑해 너는 사랑하지 않아?" "응, 엄마, 나도 엄마 사랑해." 그래요 어떡하든지 이제 그 방법이예요(사례2)

- 혼낸 후에는 께안아주거나 대화를 해요(사례3)

- 갈등은 아직 없어요 오히려 미주알고주알 개가 말을 참 잘 해요(사례 7)

(2) 자녀가 중학생인 경우

자녀의 연령이 많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갈등을 대화나 이메일 등의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다. 모-자녀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또 줄이기 위하여 자녀들에게 종교를 갖도록 권유하기도 하였다.

- 어릴 때부터 일부러 교회를 보내는 이유가 신앙심을 가지면 좀 나아질까, 성장기 때(사례4)

- 한참 있다가 인제 얘기하죠 대화하죠 어찌고, 저찌고 그러다가 또 안 되면 또 소리나오고 그래요(사례4)

- 일단 대화를 좀 많이 하고요, 이메일 있으니까 이메일로 편지를 써서 서로 얼굴보고 얘기할 때는 서로 다투고 갈등도 있지만 또 글로 전하는 부분은 마음의 깊이 있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것 같아요(사례5)

- 어차피 애들도 나를 이해해야 되고, 이해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또 생길 문제고 둘이 싸우다가 말구요, 둘이 풀고 그냥 그래요(사례6)

3) 자녀들과의 대화

한 사례를 제외하고 모두 시간제나 종일제로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의 대화는 어려웠지만 여성 한부모들은 가능한 한 자녀들과 마음을 열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였다

(1) 대화 시간대와 시간 양

대화는 주로 식사시간이나 잠 잘 때, 자녀의 하교시간이나 직장 출근 전에 하였다. 하루 평균 대화시간은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3시간 정도하였으며, 평균적으로 1~2시간 하였다. 또한 평생교육차원의 부모교육을 받게 되면 자녀들과 대화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듯 했다. 이는 여성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잘 나타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직장)가기 전에 잠깐 준비물 챙겨주고, 밤에 오면 자니까. 내가 개네들 올 때쯤에 가니까. (비교적 많은 대화는) 그니까 일요일만 교회가면서. 그것도 하루에 뭐 일요

일 같은 때도 2시간 정도(사례1)

- 제가 수업(저소득가정 무상교육)을 끝나고 가면요 학교 과제나 봐주면서 얘기를 하고, 밥 먹고 나서 과일 먹으면서 얘기를 하죠 또 그냥 저녁 먹고, 먹기 전하구요 기본이 두 시간 정도(사례2)

- 항상 바쁘게 생활하다보니 충분히 아이들과 시간을 같이 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로 식사하거나 자기 전에 해요 대략1~2시간 정도(사례3)

- 우리는 잠잘 때, 일상시간에 저녁에, 잘 때 한 10분. 오면 컴퓨터 해버리고 하니까, 한 10분 정도(사례4)

- 저녁때 주로 많이 하고, 아무래도 식사 전후에 준비하면서, 또 식사하면서, 그리고 또 잠자기 전후. 이런 때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사례5)

- 3시반정도부터 6시반정도까지는 같이 집에 있으니까(사례6)

- 아이들과 마음을 열고 대화하려고 노력해요 보육교사교육원을 다녔는데 그 때 배운 것이 진짜 도움이 되었어요 (중략) 저녁 밥 먹을 때 한 시간, 자기 전에, 잠들기 전에 한 30분. 저녁때 밥 먹을 때는 하얏튼 얘기를 꼭 해요 애들이 서로 막 경쟁이 붙어가지고(사례7)

(2) 대화 시 장애가 되는 요인

자녀가 어릴 때는 자녀들과 대화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으나, 자녀의 연령이 많아지면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나 이혼 이유에 대한 질문,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가 혼자만 있고 싶어 하는 마음, 컴퓨터에의 몰입 등이 대화 시 장애요인이 되었다.

- 없어요, 어려서(사례1)

- 아빠가 없어서 부족하다. 왜 옛날엔 안 그랬던 거 같은데 엄마 혼자 있으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런 얘기를, 솔직한 얘기를 저한테 해요(사례2)

- 컴퓨터요(사례4)

- 아무래도 아빠에 대해서, 시댁식구에 대해서 아이는 나의 눈치를 보고, 나는 아이가 마음 아파할까봐 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사례5)

- '왜 헤어져 살아야 되냐?' 이런 거 물어볼 때 난감하고...(사례7)

3. 여성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방법 및 양육태도

여성 한부모는 가능한 한 물질적인 방법을 피하면서 칭찬과 벌을 사용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1) 여성 한부모의 자녀양육방법

사별로 인한 여성 한부모는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방법을 이용한 칭찬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혼한 경우에는 물질적인 방법에 의한 칭찬도 가끔씩 사용하였다. 또한 사별이나 이혼에 관계없이 자녀의 행동을 격려하기 위하여 칭찬과 스킨십을 많이 하였다. 벌은 사별과 이혼 모두 체벌을 사용하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때로 반성문을 쓰거나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하여 떨어져 있거나, 혹은 자녀가 좋아하는 물건을 숨기는 방법 등을 사용하였다.

(1) 칭찬하고 격려할 때

① 사별인 경우

- 칭찬할 때는 뭐 어떤 방법이라는 것보다 '엄마 나 이렇게 했는데...'그럼 '그래 잘했어. 잘했으니까 용돈 줄께.' 이렇게는 한번도 안했어(사례1)
- 물질적으로 공략은 안 해요 (중략) '엄마는 모든 면에서 배운다.' 그래요 엄마도 피아노를 과외 하지만 엄마는 더 배워. 사람은 모두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도 더 많은 공부를 하신다.(사별2)

② 이혼인 경우

- 칭찬을 할 때는 주로 격려해주고, 때로 아이들이 갖고 싶은 것을 사주기도 해요 (중략) '잘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격려를 많이 해줘요(사례3)
- 잘했다고 말 한마디 해주죠(사례4)
- 칭찬할 때에는 물론 말로도 칭찬을 하지만 많이 이렇게 안아주려고 하구요 (중략) 안아주고 머리 만져주고 그리고 예쁜 딸, 멋진 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하나밖에 없는 딸. 이런 식으로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기 때문에 자녀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사례5)
- '어, 잘했어.'(라고 말하기도 하고), 물건을 사주기도 하죠 밥 같은 것도 잘 나가서 먹고 (중략) '내가 딸은 잘 두었어.' 이런 식으로 하고 다른 사람들 있는데서 자랑을 좀 해요, 같이 있을 때.(사례6)
- 안아주고요 또 엉덩이 두드려주거든요 뽀뽀해주고 그냥 꼭 안아주고 (중략) '잘 한다, 진짜 멋있게 잘한다.'고, '엄마 잘못하는데 너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좀 해주는 편이에요 말을 조금 많이 덧붙여서 해요, 그냥 그렇게.(사례7)

(2) 벌줄 때

① 사별인 경우

- 매를 대는 편이에요(사례1)
- 매도 들고, 소리도 지르고(사례2)

② 이혼인 경우

- 가끔 체벌을 사용하기도 하지요(사례3)

- 우리는 반성문을 많이 쓰죠(사례4)

- 어렸을 때는 사랑의 매다 해서 매도 들고 했지만, 이제는 그럴 나이도 지났기 때문에 그냥 각자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갖게 하죠 자녀도 생각하고 저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죠(사례5)

- 소리 지르죠 엄마들 쉽게 소리 지르잖아요 소리 뻑 질러버리고 그냥 그러고 넘어가요 때릴게 뭐있어요, 애들을(사례6)

- 물러블레이드 차에다 갖다 놓는 거요 못 타게(사례7)

2) 여성 한부모의 자녀양육태도

여성 한부모는 자녀가 약속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으며, 자율적인 면도 있지만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더 많이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

-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거는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제일 소중한 거고 제일 착한사람이야(사례1)

- 한 가지 자신하는 건 지금까지 아이들과 약속은 다 지켰습니다. 한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중략) 그냥 생각을 존중해주는 데 통제도 해요(사례2)

- 아이들을 자율적이면서도 엄하게 키우려고 하지요(사례3)

- 통제하는 편이죠(사례4)

- 특별히 통제적이랄까.(사례5)

- 자율적으로 놔두는 편이에요 정말 공부 같은 건 못해도 애들 못나게 못되게 그렇게는 안 키웠어요 그런 부분에서 만큼은 저도 내가 용서가 안 되니까.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며 행동거지 같은 건 많이 잡아요(사례6)

- 내가 막 나서서 해주는 건 없어요. 지들이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그렇다고 방관은 아니고 스스로 할 수 있게.(사례7)

4. 여성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책제안

여성 한부모가족들은 주로 경제적 측면과 관련된 문제들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즉 자녀들의 교육비에 대한 정부나 지방행정부의 실질적인 보조, 특별한 기술지도나 직장알선, 주택문제, 자녀의 탁아문제 등을 들었다. 이와 함께 정서적 안정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 호주제 폐지 등도 정부정책으로 다루어지기를 원하였다.

- 일자리. 여자들이 나가면 사실 돈백만원도 안되는 인건비가 많잖아요 (중략) 그런 사람들(여성 한부모)이 할 수 있는 직장이라든가, 무료로 뭘 배울 수 있는 그런 거라든가, 그런 혜택이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하죠(사례1)

- 우리나라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사교육비가 너무 엄청나요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일단은 고등학교, 대학교 등록금을 떠나가지고 그러한 면도 조금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100프로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기초적으로 애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원 넣어보니까.(사례2)

- 한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정서적인 차원의 안정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사례3)

- 교육문제요 딱 부러지게 교육문제. 사교육비가 너무 드니까.(사례4)

- 이혼녀에 대한, 결혼사정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여성들이 홀로 설 수 있는 어떤 기술이나 경제적인 부분을 좀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입니다. 직장 알선도 중요하지만 어떤 생계를 보조해주어서 전문적인 어떤 기술을 배워서 그 장래성 있는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면 자녀를 양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녀탁아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도 어려운데 아이가 탈선을 해서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이중고보다는 자녀의 탁아문제나 자녀의 어떤 방과후지도 이런 거를 지원해주어서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정부에서도 같이 협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사례5)

- 호주제 폐지, 지금 제일 절실해요 특히 양육권 문제로 더 심하죠(사례6)

- 당장은 교육비 그거하고 사는 거, 집하고 중학교 무상교육 한단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교육을 좀 싸게 정해서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사례7)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사별과 이혼에 의한 여성 한부모가족 중 7사례를 유의표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이 지니고 있는 경제적, 심리적인 문제와 모-자녀 관계에서의 어려운 점, 자녀양육방법이나 태도 및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여성 한부모가족을 위한 문제들이나 정부 대책에 대한 바람 등을 질적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분석된 결과들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으로 인한 여성 한부모가족이 된 연령은 27~35세로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과 일치하였다. 이혼 연령도 평균 이혼연령(37.1세)보다 낮고(33.2세), 연구대상의 50%가 학령전 자녀가 있음에도 이혼함으로써 자녀의 연령에 관계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선 전국적인 이혼 연령의 하향화 경향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다음으로 지방의 초혼연령이 도시보다 낮아 자녀출산이 더 일찍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어린 연령의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한다는 점이다. 이는 지방은 도시에 비해 일찍 결혼하여 결혼에

대한 철학 등이 미진한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함으로써 결혼 중 발생하는 문제들을 적절하게 극복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제는 추후 연구를 통해 실제로 검증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의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의 학력 수준으로 대부분 서비스직이나 생산직 등에 종사하였으며, 그나마 모두 계약직으로서 불안정한 직업상태였다. 월급여 수준도 전남편의 자녀양육비를 제외하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한부모들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 과반수 이상이라는 김미숙 외 5인(2000)의 조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미연방 정부 인구조사국의 자료(SIPP)를 이용하여 양육권자인 이혼 여성의 52.6%가 고졸 이하이고, 59.9%가 40시간 이상 근로하며, 소득 수준이 낮다는 윤홍식(200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이런 결과들은 결국 미국과 한국 모두 여성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열악함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자녀양육은 전남편의 양육비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 여성 한부모가 맡고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혼 후 경제적인 능력에 관계없이 단순히 자녀양육은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용이하다는 생각과 어머니들 스스로 자녀들은 자신이 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머니에게 더 많이 맡겨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 자녀에 대한 애정정도, 자녀의 요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됨으로써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들은 본 연구에서와 같은 결과를 산출하였다. 즉 장혜경·민가영(2002)의 연구결과, 이혼 여성의 상당수가 고졸이며, 이들은 대부분 단순노무직이나 서비스직에 종사하였으며, 한달 소득이 100만원 이하(57.5%)이며, 응답자의 7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것과 일치한다. 또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이 경제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 가족이 빈곤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던 연구결과들, 대부분의 여성 한부모가 양육권과 친권을 많이 갖게 되지만 양육비의 지급에 있어서는 전남편들이 매우 소극적이어서 이들로부터 전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지원 자체가 불충분하였다는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김미숙 외 5인, 2000; 김영희, 1996; 변화순·송다영·김영란, 2000; 성정현 외 4인, 2001; 옥선화, 2003; 장혜경 외 3인, 2001; Lino, 1994). 결국 이런 결과들은 여성 한부모가족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드러내준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로 여성 한부모가장이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이들의 고용을 촉진시켜 줄 수 있는 정책입안의 필요성을 시사해준다.

이혼의 전반적인 사유는 성격차이, 남편의 외도와 폭력, 남편의 경제적인 무능력 등이었으며 이는 장혜경(2001), 장혜경·민가영(2002)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여성 한부모가족들은 안정된 직장을 갖지 못함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적응과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해야 하는 심리적 위압감과 남편이 없음으로

인한 갑작스런 심리적 공허함 등의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유교적 전통으로 인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각, 정부나 지방행정부의 부족한 재정적 지원 등의 사회적, 제도적 어려움도 나타내었다. 결국 이들은 이혼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태도가 매우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삶의 중요한 부분에서 실패했다고 느끼며 자신을 비난하거나 타인과 사회를 원망하기도 하는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여성 한부모가족이 된 후에 술과 담배를 가까이 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자녀 때문에 주저하기는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과 심리적인 외로움 등을 이유로 재혼도 고려하였다. 심리적인 어려움은 사별보다는 이혼이 주변의 냉대와 배척 등으로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이혼으로 인한 여성 한부모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고 두려우며, 사회적 관계망을 단절시키게 되는 요인이 된다는 옥선화(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여성 한부모가족이 심리적으로 보다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정서적·사회적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셋째, 본 면접대상자들은 자녀들의 양육을 거의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자신의 적응뿐만 아니라 자녀양육에 대한 문제를 동시에 극복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자녀들과 아버지와의 만남도 고려해주어야 하는 심리적인 불편함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 특히 아버지와 의 만남은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혜경·민가영(2002)의 연구에서 이혼여성은 전 남편과 60% 이상 교류하지 않으며, 교류한다면 주로 자녀와 관련된 이유였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여성이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씨 사용이나 각종 서류상의 문제들은 여성 한부모가족에게 있어서 또 다른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제공해주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일인일적제를 실시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써 조이혼율이 3.0(통계청, 2003)에 이르고 있는 현 상황에서 호주제의 폐지는 매우 시급한 문제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넷째, 여성 한부모가족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사교육도 충분히 시켜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자녀들에게 미안함과 부모가 함께 있어주지 못함에 대한 죄책감도 지니고 있었다. 이는 장혜경·민가영(2002)이 이혼 여성들은 자녀들이 아버지와 함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미안해한다는 결과와 김미숙 외 5인(2000)의 자녀양육 시 편모는 교육비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지적했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여행이나 명절 등의 나들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들 스스로 주변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이런 결과는 여성 한부모가족이 자신들의 생각이나 정서를 함께 공유하면서 어울릴 수 있는 동질적인 집단 대상의 다양한 복지시설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자신들이 부모의 이혼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나 부모와 관련된 학교 활동이나 가족소개 등이 있을 때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여성 한부모가족들은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들로 모-자녀관계에서는 갈등이 존재하게 되는데 연령이 어린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아직 갈등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청소년기의 자녀들과는 다소의 갈등이 존재하였다. 이런 결과는 장혜경 외 3인(2001)이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들은 아직 갈등에 대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여 가족관계에서 문제가 별로 없다고 지적한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자녀 자신들이 이혼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는 Wallerstein et al.(정현숙, 1993, 재인용)의 연구결과, 이혼은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는 지적(서병숙 외 5인, 2002: 120)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여성 한부모들이 사용하는 양육방법은 체벌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메일을 보내거나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다섯째, 여성 한부모는 직장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자녀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루에 1-2시간 정도는 자녀들과 대화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자녀가 어릴 때는 대화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자녀의 연령이 많아지면서 한부모가족이 된 것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이나 혼자 있고 싶어 하는 마음 등으로 대화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냈다. 이는 모자가족 내에서 어머니와 자녀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지각했다는 권복순(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비교적 개방적으로 이루어지며, 대화시간이 대부분 1시간 미만(70.7%)이었다는 김오남(1999), 이소영·옥선화(2002) 등의 연구결과와는 불일치하는 것이다.

여섯째, 여성 한부모가족들은 자율적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통제적인 자녀양육방법 및 태도를 지니고 있었으며, 약속의 중요성도 특히 강조하였다. 이는 여성 한부모가족의 대부분이 전 남편과의 생의 약속이 어긋나면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생겨난 태도라고 생각한다. 또한 아버지 없이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자녀들의 많은 행동들을 통제하게 되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도 생각한다. 이는 여성 한부모의 자녀와의 상호작용 유형이 더 통제적이라는 Henry(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만, 이들이 부모역할에서는 온정적/지지적인 관여행동을 더 많이 나타낸다는 김영희(1996)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여성 한부모가족들은 비교적 자녀들의 자신감을 격려해주기 위하여 칭찬이나 강화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부모가족 중 친지, 사회단체나 기관 등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관계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혼한 여성의 경우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는 옥선화(200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여성 한부모 가족들은 자녀들이 아버지가 없는

것으로 인해 주변사람들의 시각을 많이 고려하게 되고 자녀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뻘뻘어진 성격을 갖지 않으면서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컸다. 이를 위해 자녀들과 안정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나 사회가 기본적인 생활복지 체제를 마련해주시기를 기대하였다. 이는 많은 한부모가족 대상의 연구결과들에서 지적된 것과 일관된다(김경신, 2002; 김미숙 외 5인, 2000; 김오남, 1999; 윤홍식, 2003; 장혜경 외 3인, 2001; 장혜경·민가영, 2002).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호주제의 폐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안정된 직장 생활을 위한 무상 기술교육과 자녀의 사교육비 지원을,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여성 한부모가족이나 자녀들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언제라도 상담할 수 있는 전문기관과 정서적 안정을 제공해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마련과 실시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이는 이혼 여성들은 양육비와 관련하여 사교육비가 가장 부담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경제적인 안정적 지원을 원했던 김미숙 외 5인(2000), 장혜경·민가영(2002) 등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들도 김득성(2002), 장혜경·민가영(2002), 정수경(2001) 등이 지적한 안정적인 가족관계 프로그램이나 여성 자신의 감정적인 독립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차원의 부모교육을 받은 경우 자녀들과 대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했던 사례를 통해 여성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모교육도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이상의 여러 면에서 볼 때 여성 한부모가족의 교육과 상담은 김경신(2003)이 지적한 것처럼 이들의 장시간 취업을 고려하여 야간시간을 이용하는 방법과 좀 더 강화된 자녀지원체제와 내용을 가지고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의 여성 한부모가족만을 대상으로 심층면접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기에 진정한 한부모가족의 문제를 살펴보았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남성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모든 한부모가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다양한 직업유형과 교육수준 및 도농지역 등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심층면접과 함께 전국적 차원의 여성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 한부모가족을 둘러싼 사회관계망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제 정부는 늘어만 가는 이혼율을 바라만볼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2002년 하루평균 840쌍이 결혼하고 398쌍이 이혼해 이혼율이 혼인율의 절반 가까이 이른다(동아일보, 2003. 3. 28)는 놀라운 현실과 이혼한 사람들의 80%가량이 이혼 후 이를 후회한다는 결과(중앙일보, 2003. 11. 24) 앞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전환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관련법과 제도를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또한 한부모가족이 새로운 가족 유

형의 하나라는 점을 받아들이고 이들이 일반 가족들과 같은 수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체계를 마련해주고 사회적인 인식 전환을 위한 계몽도 해야 할 것이다.

정부나 지방행정은 여성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생활유지를 위한 현실적인 수준의 생계비나 교육비 등의 재정적인 지원과 더불어 선진국들이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들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면 공동주거,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전용 센터의 설립, 한부모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의 인터넷 사이트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시도해야 한다. 양혜경(2001)도 상담 서비스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나 지역복지기관의 연계망 수립 등을 제안한 바 있다. 특히 여성 한부모가족인 경우 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고 부모의 문제로 인해 자녀들이 심리적인 위축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도움을 복지관련 기관들뿐만 아니라 현존 유관 기관들과 협력하여 보다 적극적인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자녀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여성 한부모들이 청소년기의 자녀들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의 개발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각 가정마다 지각된 가족기능의 특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어머니와 자녀에게 개별화된 가족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소득수준이 낮은 여성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사회의 최하위 계층으로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것이 자녀에게 대물림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빈곤계층으로의 유입예방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런 의미에서 김경신(2003)이 지적한 것처럼 한부모가족 정책은 단순한 복지차원보다 차세대를 통한 국가개발이라는 대전제하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통합적 중심체인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정책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사회구조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국가주도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접수 일 : 2003년 09월 04일

심사 일 : 2003년 09월 20일

심사완료일 : 2003년 12월 30일

[참고문헌]

- 강기정·이무영·김영희(2002). 한부모가족의 복지 지원체계로서의 가장 공동체 활용에 관한 기초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10), 141-159.
- 권복순(2000). 모자가족의 어머니와 자녀가 지각한 가족기능의 특성. *한국사회복지학*, 40, 5-37.

- 김경신(2002). 한부모가정 아동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아동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93-110.
- _____(2003). 한부모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활성화 방안 및 효율적 정보전달체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7), 73-89.
- 김득성(2002). 이혼적응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1-8.
- 김미숙·박민경·이상현·홍석표·조병은·원영희(2000). 저소득 편부모 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 김보경(2001). 이혼가정의 학교-가정관계, 아동의 성취동기 및 학교생활적응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옥(1993). 이혼 대책에 관한 요구도 조사연구. 한국가족학연구회 편. **이혼과 가족문제**(105-154). 서울: 도서출판 하우.
- 김희희(1996). 빈곤층 편모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부모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오남(1999). 편부모가족의 모자녀관계와 심리적 복지. **한국가족복지학**, 4(2), 63-80.
- 동아일보(2003). 하루 398쌍 이혼... 혼인의 절반 육박. 2003. 3. 28. 15면.
- 변화순(1996). 이혼 가족을 위한 대책.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 변화순·송다영·김영란(2000).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 서병숙·이정숙·김혜경·이신숙·왕석순·이 현(2002). **현대가족과 복지**. 서울:교문사.
- 성정현·송다영·정미숙·한정원·김 진(2001). 재판이혼의 사례를 통해 본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실태와 대안. **사회복지연구**, 18, 29-58.
- 송다영·성정현·한정원(2003).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2, 273-299.
- 양해경(2001). 한부모가족의 문제와 사회복지지원체계에 대하여. 여성과 가족정책 세미나. 한국여성개발원.
- 오은순(1996).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옥선화(2003). 여성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관계망 지원. **한국가정관리학회 2003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5-31.
- 옥선화·성미애·이재림·이경희(2002). 빈곤 여성가장이 모-자녀관계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3), 55-78.
- 옥선화·성미애·허정원(2001).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 여성가장의 생활실태 조사. **대한가정학회지**, 39(2), 1-13.
- 윤홍식(2003). 이혼 및 별거(가족해체)로 인한 모자가정의 빈곤화와 사회안전망의 역할: 미국의 사회안전망의 대응과 한국적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53, 51-73.
- 이소영·옥선화(2002). 자녀의 정서적 지원과 모-자녀간 의사소통 특성 지각에 따른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감. **대한가정학회지**, 40(7), 53-68.
- 이종숙(1997). 이혼가정 자녀의 적응에 대한 사회심리적, 발달적 이해. **한국인간발달학회 1997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장혜경·민가영(2002). 이혼여성의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정책보고서.
- 장혜경·송다영·김영란·김정훈(2001). 여성한부모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여성부 정책자료.
- 정수경(2001). 편모가족관계 강화를 위한 집단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4, 288-317.
- 정현숙·유계숙(2001). **가족관계**. 서울: 학지사.
- 조병은(1998). 편모가족의 자원이 어머니와 자녀의 긍정적 변화에 미치는 자원의 영향. **대한가정학회**, 36(1), 13-21.
- 조홍식·김혜련·신혜섭·김혜란(2000). **여성복지학**. 서울:학지사.
- 중앙일보(2003). 이혼할 때 냉각기 갖자 일정기간 유예 추진. 2003. 11. 24. 9면
- 지은선(2002). 학령기 정상가정자녀와 이혼가정자녀의 건강상태와 학교생활적응정도 비교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차경옥(2003). 가계유형에 따른 소비지출행동 분석: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의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3), 61-73.
- 최해경(1997). 사회적 지지망구조가 편부모가족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3, 377-395.
- 통계청(2003). 2002년 혼인·이혼 통계결과.
- Smilansky, S. 오은숙 역(2002). **이혼가정 아동: 가정과 학교의 역할**. 서울: 학지사.
- Amato, P.(1991). The child of divorce as a person prototype: Bias in the recall of information about children in divorced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59-69.
- Henry, C.(1994). Family system characteristics parental behaviors and adolescent family life satisfaction. *Family Relations*, 43(4), 447-455.
- Kissman, K. & Allen, J. A.(1993). *Single-parent families*.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 Lino, M.(1994). Income and spending patterns of single-mother families. *Monthly Labor Review*, May, 29-37.
- Marks, N. F.(1995). Midlife marital status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relationships with adult childre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Family Issues*, 6(1), 5-28.
- Wallerstein, J.(1986). Women after divorce: Preliminary report from a ten-year follow-up.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6, 65-77.